시인의 마을

그럴 때가 있다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익숙함으로 영혼마저
안개가 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

대답부터 질문까지 칼날이
시퍼레도
그래도 싱겁게 절로 웃음이
나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다

각을 세우며 촉수로
몸부림치고 소리 질러봐도
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미소처럼
그럴 때가 있다

때깔 좋은 모과의 달콤한
향기처럼
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길
바라는 바람같이
그럴 때가 있다

온전히 즐겨 보았는가
그럴 때가 있는가
쉼이 필요한 휴식처럼 주어진
삶에

박 여 범

용북중학교 · 시인
문학박사 · 문학평론가

-박여범 시인 '그럴 때가 있다' 전문-

‖시詩를 담다‖

자주 들었던 말이다. '그때 그랬었지', '그때, 왜 내가 그랬는지 몰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후회하지 않을 텐데', '꼭, 그럴까, 그렇지만은 않을 거야, 녹록치 않을 걸' 등 익숙한 단어의 조합이다.

이처럼, 삶은 과거와 현재, 미래지향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개인적이고 지엽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으로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삶에 초점이 갖추어진다.

정말 그럴 때가 있다. 잘 지내고 싶은 다음에 던진 한 마디가 분위기를 망친 경험이 하나쯤은 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생각 없이 튀어나온 말 한마디가 문제가 된다. 이러한 어설픈 행동이 힘든 영혼을 부여잡아야 하는 시간을 요구하는 그럴 때가 있다.

시인은 그럴 때가 있다. /대답부터 질문까지 날이 서 있어도/그래도 싱겁게 절로 웃음이 나는 것처럼/그럴 때가 있다/처럼 조금의 여유와 기다림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시어에 담고 있다. 너무 성급하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대화에 나선다면 대답부터 질문까지 날이 설 수 있음을 던져주는 메시지다.

그럴 때가 있다. 아무리 각을 세워도 우리는 만나야 하고 만나야 하는 운명의 동반자이다. /각을 세우며 촉수로 몸부림쳐도/지금 우리는 만나고 있는 미소처럼/그럴 때가 있다.

웃으면 모든 갈등과 힘듦이 해결된다. 미안하다고 먼저 손을 내밀어 보자. 내가 부족해서가 아니다. 서로를 보듬고 배려하는 생각이다.

이처럼 우리는 늘 만나고 헤어지고 웃고 울어야 하는 미약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서로 아둥바둥 다툴 필요도 없다.

웃고 살기에도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다. /때깔 좋은 모과의 달콤한 향기처럼/아무도 모르게 지나가길 바라는/바람을 닮아가는 그럴 때가 있다.

사람 관계에서 이기고 지는 자는 없다. 온전히 자신에게 부자하고 즐겨야 하지 않을까? 인연을 아끼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다. 쉼이 필요한 휴식처럼 주어진 삶에….

사 설

전북 노인의 날 의미와 과제

제25회 전북 노인의 날 기념식이 최근 전주시 중화산동 전북연합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전북연합회 14개 시?군 지회장 및 수상자들이 참석했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노인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 노인이 대접받고 사는 전북도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어르신들이 사회적으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보건복지 통합 경로당 운영,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사업, 맞춤형 돌봄 서비스 제공, 취약 계층 어르신 대상 야간 돌봄 서비스 등 다양한 사업이 필요하다.

노인의 날은 대한민국의 기념일로 10월 2일이다.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만든 기념일이다. 1997년 처음 보건복지부에서 법정 기념일로 제정했다.

노인의 날 행사는 정부 행사로써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다가, 2000년부터 노인 관련 단체의 자율 행사로 이관했다. 노인의 날은 경로효친 의식을 고양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범국민적 관심을 제고하고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일이다. 1990대 이후 평균 수명 증가로 인한 고령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제도적인 노인 대책이 요청된 것이다.

조선 시대에는 70살이 넘은 원로 문신들을 위로하고 예우하기 위해 나라에서 베푼 잔치로 기로연(耆老宴)이 있었다. 100세가 되는 노인들에게는 명아주로 만든 전통 지팡이인 청려장(靑藜杖)을 증정했다.

갈수록 노인 부양 문제와 세대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노인의 날 의미와 과제가 중요하다. 어르신들의 많은 경험들은 나라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힘이다.

통일공감 아카데미에 거는 기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담론을 형성하고 의지를 다지는 자리가 마련됐다.

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전북지회가 최근 전주시 덕진구 인덕원로 전라교육사 대강당에서 '남과 북이 함께 하는 통일공감 아카데미'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행사는 남북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전북지역에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 실현을 위한 국민적 평화 담론을 형성하고 통일 의지를 드높이기 위한 자리였다.

행사장에는 정병수 회장, 이근재 평화통일지도자전북회장, 유능영 전북지방행정동우회 회장, 윤석화 세계평화학술인연합회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문성연 전북대 교수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전라북도가 대 북한 개발 협력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최근 동향과 수요를 명확히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수연 탈북 강사는 "북한은 최근 또 다시 세 번째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는 등 극심한 경제난에 처해 있지만, 과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나가자"고 호소했다.

통일공감 아카데미는 지난 10월 18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국 15개 시 · 도에서 순차적으로 열렸다. 교수와 언론인, 지자체장, 탈북 강사 등 각계각층 통일 전문가들이 나서서 남북 관계 개선 및 교류 방안 등을 심도 있게 모색했다.

남북통일 방향성과 지속 가능한 해법을 제시해야 할 때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먼저 남북한 격차를 최소화하고 통일편익을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남북 경제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

통일 정책은 국민적 합의와 남과 북의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특히 정부 못지않게 민간 부문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통일 의지를 결집시켜 국민이 중심이 되는 통일 시대를 열어야 할 때이다. 한반도 평화 통일은 역사적 사명이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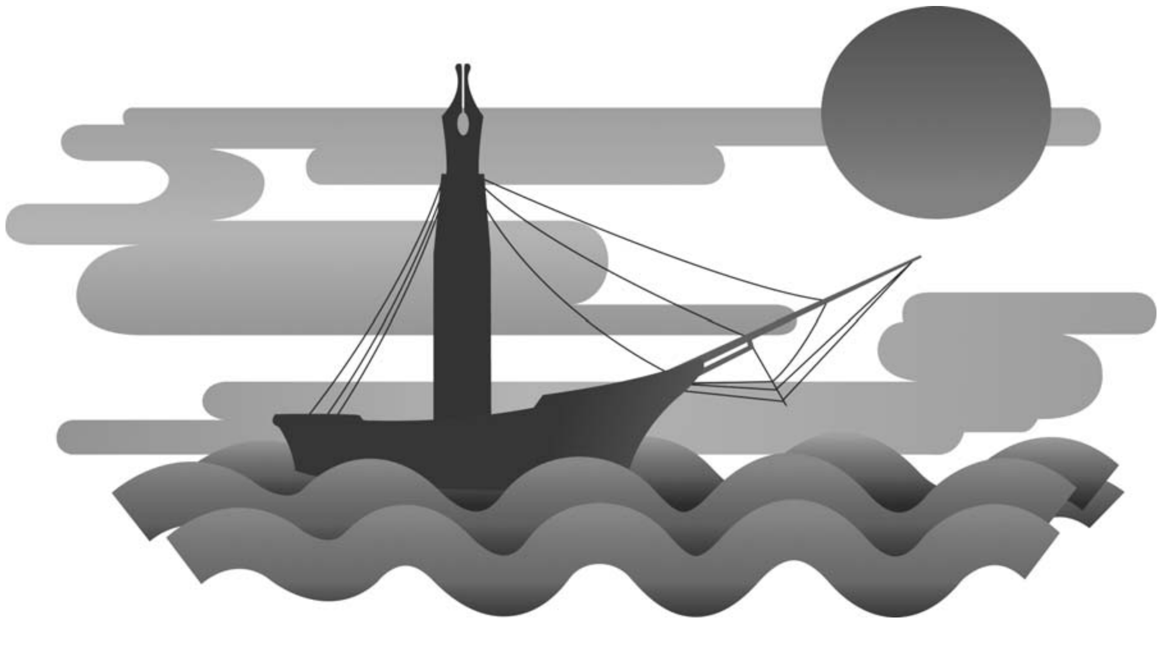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미국 파업 교사들 '5년간 무계약으로 일했다'

10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해리스버그에 있는 주 의사당 앞에서 스크랜턴 교원연합 회원들과 그 지지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정식 계약 없이 일해온 교사들은 정당한 계약과 근로 조건 등을 요구하며 6일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는 태양 향해 기도하는 네팔 힌두교도들

10일(현지시간) 네팔 수도 카트만두의 카말 연못 둑에서 힌두교 신자들이 지는 해를 향해 기도하고 있다. 4일간 열리는 고대 힌두교의 축제인 '차스 푸자'는 태양신을 섬기는 의식으로 일출과 일몰 시간대에 주요 의식을 치른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 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